

2016/1학기 사: 시대와 정신

기말 레포트
- 추종과 본능의 관계



2013***** 경영학과 조해정

2016/1학기 사: 시대와 정신

기말 레포트
- 추종과 본능의 관계

2013***** 경영학과 조해정

목차

I. 서론 1p

II. 본론

i) 추종의 기원과 사례 2p

ii) 추종의 본질-이기심 3-4p

iii) 추종의 잠재적 위험성 4-5p

III. 결론

추종의 올바른 방향 6p

I. 서론

'총, 균, 쇠'와 '소명으로서의 정치'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차이점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전자는 환경의 차이가 곧 현재의 불평등을 가져왔다고 주장한다. 한편 후자는 정치에 따른 계층화의 차이가 현재의 불평등을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로 다이아몬드는 역사적 진화의 전반을 대상으로 한 한편, 베버는 정치에 집중하여 논리를 전개하였다. 마지막 셋째, '총, 균, 쇠'는 환경의 차이가 모든 것을 가져왔다는 일원론적 전제 하에 모든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소명으로서의 정치'는 그 대상 범위는 정치로 한정되어 있지만, 실제 연구는 정치의 책임윤리와 신념윤리의 균형을 강조하는 등 다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넓고 얇게 내용을 다룬 전자와는 달리, 좁고 깊게 접근하였다는 데 있어 논리전개방식의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공통점도 크게 3가지로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 '총, 균, 쇠'와 '소명으로서의 정치' 둘 다 불평등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내용을 전개하였다는 데 공통점이 있다. 비록 내용을 이어가는 데에는 방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이들 모두 불평등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둘 다 유럽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여 오늘날 비판을 받고 있다.¹⁾ '근대 유럽사회는 모든 사회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며 인간 의지의 산물'이라는 베버와 '결국 유럽이 환경에서부터 다른 나라 보다 뛰어남'이라는 다이아몬드의 생각의 공통된 근원은 곧 외국의 반발을 살 여지를 마련하였다. 마지막 세 번째, 전자와 후자 모두 추종이라는 개념을 은연중에 핵심적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우선 '총, 균, 쇠'에서는 환경적 차이에 따라 인간의 생활방식이 달라진다는 내용을 통해 인간이 환경을 추종함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는 정치가에게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머신 즉 추종세력을 꼽고 있다.

여기서는 공통점 중 마지막 항목인 추종에 대해 다루려 한다. 왜 하필 세 가지 공통점 중 마지막 것을 선택했느냐고 묻는다면, 평소에 잘 생각해보지 않았던 소재였기 때문이라 답할 것이다. 추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여태까지는 그냥 특정인을 따르는, 이 정도로만 생각했지 더 이상 깊게 생각한 적이 없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리더십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지지 세력을 살펴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추종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훨씬 심오하고 중요한 개념임을 알 수 있었다.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살펴보면, 추종이란 추상적인 동기에 의해서가 아닌 확신을 갖고 헌신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다.²⁾

주제가 다소 철학적인 편이라 명확한 답을 내리기란 쉽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여러 참고 자료를 통해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전개하려 노력하였다. 추종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추종의 본질, 추종의 문제 그리고 올바른 태도까지 살펴볼 것이다.

1) 막스 베버의 유럽중심 역사 “틀렸다”, 뉴시스통신사, 20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2256592>

2) 「소명으로서의 정치」168p, 최장집 엮음, 2011, 후마니타스.

II. 본론

i) 추종의 기원과 사례

추종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추장 사회부터 지금까지 추종이란 항상 존재해 왔다.³⁾ 추장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이고 대물림되는 추장을, 그리고 오늘날 국가 사회에서는 대통령이나 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인물을 추종하고 있다. 오늘날 정치적 추종의 근거로 당파 싸움을 들 수 있다. 조선시대 탕평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당파 간 싸움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다. 오늘날에는 그 추종의 정도가 더 잘 드러나는데, 바로 다수결로 인한 선거 제도 덕분이다. 어떤 리더가 다른 리더들보다 얼마나 더 추종세력 즉 큰 머신을 갖고 있는지가 당선 여부를 결정하고 그 추종의 수치 또한 지지율로 공개된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추종 세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정치적 추종의 구체적인 예로 북한의 김정은을 들어보려 한다.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북한 내에서 신처럼 추앙받는 존재이다. 김정일의 머리 스타일, 안경, 그리고 체형까지 소름 돋을 정도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⁴⁾ 한편 그는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난폭한 폭군정치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얼마 전 북한의 한 대학교에서는 김정은의 기분 상태와 북한 날씨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논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추종의 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추종의 또 다른 예를 두 가지 더 살펴보겠다. 우선 '총, 균, 쇠'에서는 환경의 영향에 따라 불평등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예를 들어 동서 축 방향의 전파 속도가 남북 축 방향보다 빠르기 때문에, 유럽의 발전은 빨리 이루어졌고 아프리카나 기타 국가들은 지배받을 운명이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찾아볼 수 있는 추종은 바로 '팬덤 문화'이다. 팬덤 문화란 특정 연예인을 아무런 비판적 사고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⁵⁾ 이는 곧 문화적 헤게모니에 휩쓸려 가는, 즉 이를 추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자면 슈퍼주니어 멤버인 강인의 음주운전 사고로 예를 들 수 있겠다. 강인은 음주운전 및 기타 관련된 일을 여태까지 세 번이나 저질렀다고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강인이 다시는 연예계에 발을 내밀지 말라고 욕을 한다. 하지만 그의 팬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반발하며, 심지어 사실을 조작하고 심한 경우 사진을 합성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맹목적인 추종은 결국 이번 논점의 시초가 된다.

3) 「총, 균, 쇠」388p, 제러드 다이아몬드, 1998.

4) '김정은의 양복 차림, 할아버지 김일성 따라하기', 뉴스인사이드, 2015.5
<http://www.voakorea.com/a/3332105.html>

5) 팬덤 문화의 이해-팬덤문화,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ii) 추종의 본질-이기심

이처럼 추종의 기원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4가지 예시를 통해 추종이란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이제 다음으로 추종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해보려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추종의 근원은 곧 이기심⁶⁾이다.

인간의 이기심은 고대 이상세계를 표현한 '유토피아'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인용하자면, '폐하는 국민들이 왜 폐하를 왕으로 추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폐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폐하가 온 힘을 기울여 그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 주고, 그들을 부정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폐하의 사명은 폐하 자신이 아니라 백성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중략)...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는 자들이야말로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복하려는 강한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⁷⁾ 라고 대답했다. 즉 아주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기심에 대해 자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앞의 사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정치적 측면의 추종을 살펴볼 것이다.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도 보았듯이, 추종은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행동⁸⁾임을 알 수 있다. 그를 추종하는 동안 그 공로로 받게 되는 대가, 자기가 추종하는 사람이 당선이면 자기에게도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등이 그들을 추종하게 만든다. 즉 뛰어난 카리스마적 정치의 내면에서도, 추종자들은 사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여 정치적 추종을 행한다는 것이다. 만일 아무런 대가가 없는데 그를 따른다면, 엄청난 신념을 가진 지도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며, 결국 그 신념을 보고 성공가능성을 읽어 그에 편승하려는 무의식적인 이기적 심리⁹⁾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머신은 아무리 그 신념을 실행시키는 도구라도 하여도 결국엔 정치를 통해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일종의 이익집단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수장 김정은의 사례도 자세히 살펴보겠다. 김정은을 지지하는 사람은 전체 북한 인구의 5%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들은 김정은을 보필하는 대신 북한 내에서 명예를 얻고 부유한 삶을 살아간다. 한편 일반 민중들은 만일 김정은을 추종하지 않는다면, 생존의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그를 추종한다고 생각된다. 결국 정치적 세력을 위해서나 아니면 생존을 위해서나 어쨌건 개개인의 이기심이 작용한 결과로 김정은에게 모든 세력이 집중된 1인 일당 지배 체제¹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환경적 측면의 추종을 분석해보려 한다. '총, 균, 쇠'에서 그러나 여기서 환경의 영향이란, 능동적인 것인가 수동적인 것인가? 전자는 인간의 생존본능, 즉 생존을 위한

6) 추종의 유형 [types of compliance] (사회학사전, 2000. 10. 30. 사회문화연구소)

7) 「유토피아」제 1부 59p, S.T.모어, 2006, 흥신문화사.

8) 「소명으로서의 정치」 166-168p, 최장집 엮음, 2011, 후마니타스.

9) 「이기적 유전자」294p, 리처드 도킨스, 2006, 을유문화사.

10) 북한의 정치체제 (두산백과)

추종을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곧 자연을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완전한 모방보다는 약간의 이기적인 심리가 더 우세하다. 이에 관련해서,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 의하면 모든 생물의 진화 과정은 환경에 유리하도록 점점 발전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기생자로 인한 돌연변이의 출현은 곧 확산되어 새로운 종으로까지 발전한다. 이는 곧 자연에 대 나름대로의 이기심이 작용한 추종임을 의미한다.¹¹⁾

세 번째로 팬덤 문화의 본질에 대해 고찰해보려 한다. 젠킨스는 '팬들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지배적 헤게모니 문화에 도전하는 해석들을 지니고, 자신들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창조적이고 능동적이며 참여적인 생산 활동을 하는 공동체이다.'¹²⁾ 라고 이를 설명하고 있다. 즉 맹목적인 추종으로 보였던 팬덤 문화 역시 자기 자신의 권력 행사를 위해 나름대로의 이기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종의 이면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기심이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이기심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물론 생물의 진화처럼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기주의의 악용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어서 추종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i) 추종의 잠재적 위험성

추종은 기본적으로 집단이 아닌 개인적 단위의 이기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모여 머신, 생물학적 진화, 팬덤의 형성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개인적 이기심의 위험성은 무엇인가?

우리는 합리주의의 뒷에 걸려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곧 우리 자신이 잘났다는 이기심의 연장선이다. 따라서 내가 결정한 사항이라면 상황이 항상 유리한 방향으로만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혼자서 결정하는 것은 슈메이커와 에드워드 루소의 연구¹³⁾ 에서 볼 수 있듯이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이사들에게 얼마나 자기 전공을 알고 있는지 측정하였는데, 2000명 중 총 99%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함이 드러났다. 한편 실패를 자주 경험할수록, 우울증 및 자살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연구¹⁴⁾가 존재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칫하면 인류 전체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개인이 서로 다른 자신의 이기심을 내뿜다가 제풀에 지쳐 다들 의지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기적 행동, 즉 추종은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11) 「이기적 유전자」140p, 리처드 도킨스, 2006, 을유문화사.

12) Jenkins, H.-Textual Poachers: Television Fans & Participatory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2)

13) 「소셜 애니멀」329p, 데이비드 브룩스, 2011, 흐름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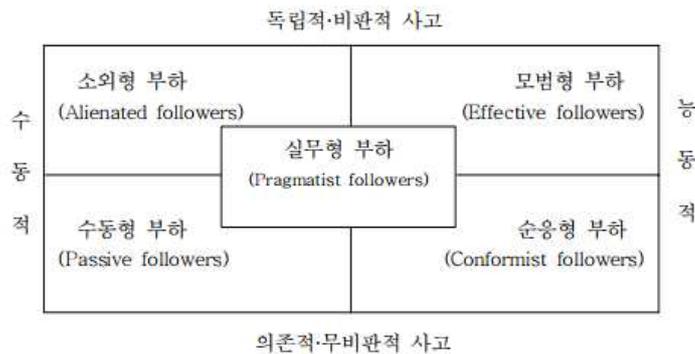
14) Don Peck-The Atlantic, essay

한편 지나친 이기심으로 인한 집단적 추종은 오히려 개인적 추종보다 더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역이기주의나 사생팬 문제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아무리 개인보다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집단이라고 해도, 비뚤어진 개인들의 집합은 결국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올바른 추종 집단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며, 결론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Ⅲ. 결론

이상의 분석을 통해 추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려 한다. 첫 번째, 개인의 이기심은 집단생활을 통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앞서 보았듯 개개인의 판단은 오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집단 사고의 경우 그 정확성이 현저히 높아진다. 일례로 와슨 선택 과제라는 카드게임¹⁵⁾에서 개인이 9%가 성공한 반면 집단의 75%가 성공하였다. 이처럼 집단의 사고는 개인의 사고보다 항상 우수하다. 정치적 추종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정기적인 회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환경적 추종에서도 집단적 추종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다. 진화는 돌연변이를 필요로 하는데, 같은 무리 내 세포는 상호 생존을 한다.¹⁶⁾ 결국 돌연변이가 더 환경에 바람직한 경우 그를 도태시키지 않고 그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한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추종에 대한 자세는 무엇일까? 앞서 개인의 이기심이 모인 집단의 판단을 통해 좀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론에서 확인하였다. 하지만 그 집단 또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올바른 집단의 선택에 대한 안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판별해야 하는가?



<그림1>

15) 「소셜 애니멀」390p, 데이비드 브룩스, 2011, 흐름출판.

16) 「이기적 유전자」144p, 리처드 도킨스, 2006, 을유문화사.

위의 <그림1>에서 보듯 Kelley¹⁷⁾는 바람직한 추종을 '모범형 추종' 이라고 주장하며 그 특성으로 자기관리, 조직과 동료에 대한 헌신, 자기계발, 용기를 제시하였다. 전체 부하의 5~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지도자나 집단으로부터 독립해 자주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한다. 결과적으로 시너지 효과로 인해 지도자의 힘이 강화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의 추종을 하는 집단에 속하여 우리 자신의 발전을 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추종을 위해서는, 자기 과신을 버리고 집단 생활을 통해 오류를 줄여야 하며, 그 안에서도 능동적이고 깨어있는 추종을 행해야 한다.

17) 추종유형과 지도력유형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순용, 2005.

참고 문헌

막스 베버의 유럽중심 역사 “틀렸다”, 뉴시스통신사, 200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3&aid=0002256592>

「총, 균, 쇠」388p, 제러드 다이아몬드, 1998.

'김정은의 양복 차림, 할아버지 김일성 따라하기', 뉴스인사이드, 2015.5

<http://www.voakorea.com/a/3332105.html>

팬덤 문화의 이해-팬덤문화, 2014. 4. 15. 커뮤니케이션북스

추종의 유형 [types of compliance] (사회학사전, 2000. 10. 30. 사회문화연구소)

「유토피아」제 1부 59p, S.T.모어, 2006, 흥신문화사.

「이기적 유전자」140p, 144p, 294p, 리처드 도킨스, 2006, 을유문화사.

북한의 정치체제 (두산백과)

Jenkins, H.-Textual Poachers: Television Fans & Participatory Culture. New York: Routledge. (1992)

「소셜 애니멀」329p,390p, 데이비드 브룩스, 2011, 흐름출판.

Don Peck-The Atlantic, essay

추종유형과 지도력유형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분석, 최순용, 2005.